

#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48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41 (형제에게 베푼 것)	46 (사랑의 송가)	436 (주 날개 밑)

### 제 1독서 | 다니엘 12,1-3

#### 화답송 |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좌)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우)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좌)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 제 2독서 | 히브리서 10,11-14,18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알렐루야

#### 복음 | 마르코 13,24-32

#### 영성체 후 묵상 |

우리에게 언젠가 다가올 '사람의 아들'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늘 깨어 기도하고자 하는 위령 성월의 주일입니다. 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 날과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이 독서 말씀에 담겨있습니다.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는 우리를 향한 보호자의 약속을 알려줍니다. 그날이 되면,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호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될 자리로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화답의 노래로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Today's Gospel - Mark 13,24-32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n those days after that tribulation  
the sun will be darkened,  
and the moon will not give its light,  
and the stars will be falling from the sky,  
and the powers in the heavens will be  
shaken.

And then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the clouds'  
with great power and glory,  
and then he will send out the angels  
and gather his elect from the four winds,  
from the end of the earth to the end of the  
sky.

Learn a lesson from the fig tree.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  
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  
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  
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When its branch becomes tender and  
sprouts leaves,

you know that summer is near.

In the same way, when you see these  
things happening,

know that he is near, at the gates.

Amen, I say to you,

this generation will not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have taken place.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ot pass away.

But of that day or hour, no one knows,

neither the angels in heaven, nor the Son,  
but only the Father."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  
다.”

### <교부들의 성경 주해 >

“하느님의 자비는 조각들을 모아들이시고. 사랑의 불로 태우시어 부서진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창조하신 분께서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처음 빚어내신 분께서 다시  
빚어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당신 진리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공평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심판 때 그분은 선택된 이들은 당신 곁에 모으시고, 나머지는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 아우구스티누스 <시편 상해 95.15>

“세상이 현재의 상태에서 더 낮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흔히 ‘소멸’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빛나는 상태로 변화하면서 예전의 형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 순되거나  
어리석은 말이 아닙니다. 바오로는 세상 자체가 아니라,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다”(1코린 7,31)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더 나쁜 것 에서 더 좋은 것으로 옮겨가는 것을 ‘소멸’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유아  
단계에서 아름답고 성숙한 단계로 건너가는 어린이를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는 이를 두고 옛 모습이  
사라졌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 올림푸스의 메토디우스 <부활 9>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 34)

익수(溺水) 사고로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몇 년째 재활 치료 중인 20대 여성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방문이었다. 봉사자는 의식불명의 외동딸을 간병하느라 어머니가 너무 지쳐서 신부님의 방문과 위로가 꼭 필요하다며 안타까워했다. 나는 이런 봉사자의 모습에서 날마다 환자를 찾아 나서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나도 주님처럼 딱한 모녀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아울러 안타까워하는 봉사자에게도 조금이나마 격려를 전하고 싶었다.

커튼을 쳐놓아 어두운 병상에 환자가 초점 없는 눈으로 입을 벌리고 누워 있었다. 환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환자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앉아 있는데, 봉사자의 말 그대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병실에 들어설 때도 아무 반응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보호자가 천천히 얼굴을 들더니 내 로만 칼라를 한동안 쳐다보았다.

“맨날 똑같죠.” 한숨 쉬듯 짙막하게 대답한 보호자는 환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마지못해 대답하는 태도에 나는 속에서 짜증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나는 ‘가뜩이나 힘든 보호자가 너를 반겨 주기라도 하라는 거냐?’라며 서둘러 자신을 꾸짖었다. 하지만 이미 잔뜩 꼬여 버린 마음에 스스로 당황한 나머지, 나는 정신없이 환자의 임상(臨床) 정보를 캐묻기 시작했다.

“어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보호자는 ‘차라리 말하기 싫다고 하라’고 할 정도로 한참 뜬 입을 들인 다음 대답했다. “몇 년 전에 물놀이 갔다가...” 나는 잠시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채근했다. “그래서요?”

한참 기다려서 “물에 빠져서 이렇게...” 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실랑이하듯 알아낸 임상 정보를 가지고 다른 때와는 달리 제법 열심히 보호자를 위로하고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방문을 마쳤다. 딱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연민의 정이 커지기 보다 짜증이 여전한 것에 스스로 놀란 속마음을 들리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거다.

그렇게 며칠 동안 찻집하던 차에 봉사자에게 연락이 왔다. 봉사자는 환자의 어머니가 ‘이것저것 캐묻기만 하고 진짜 신부 맞느냐?’고 묻더라며 되레 나를 걱정해 주는 눈치였다. 나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말았다는 생각에 우울해져 CPE(임상 사목 교육) 자문위원인 정신건강의학 교수에게 물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있는 힘을 다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번번이 상처만 줄까요?” 교수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이웃을 ‘예수님으로’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셨다고요?”

그리고 다시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다. 나도 모르던 ‘어설픈 예수님 흉내 내기’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여라’ 하셨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흉내 내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 날도 주님께서는 환자와 지친 어머니에게 나를 보내시어 ‘당신으로’ 사랑하길 바라셨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돌보겠다는 선의(善意)를 기대만큼 받아주지 않는다며 잔뜩 골을 내고 있었다. 짐짓 자기가 주님인 양 연민 어린 사랑 흉내 내기에 골몰하던 내가 아직 이웃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한 탓이었다.

-고종향 가톨릭 신부

<희망의 기도 - 헨리 나웬>

사랑하는 하느님, 저는 수많은 소망과 열망 그리고 바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 중 어떤 것들은 실제로 채워지겠지만

많은 것들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욕망이 충족되어 기쁠 때나 그렇지 못해 실망할 때에도

저는 당신 안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임을,

그리고 당신의 성스러운 약속들을 채워 주시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저의 바람과는 다르게 되어가는 듯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신의 뜻임을,

그리고 그 길이 결국엔 저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저의 수많은 소망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특히 바로 그때에 저의 희망이 더 강해지도록 은총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사랑이심을. 아멘.

## 공지 사항

### 1. 공동체 식사 및 간식 나눔

- 오늘 미사 후에는 ‘간식 나눔’이 있습니다.
- 12월부터 1월까지의 식사 및 간식 나눔도 잠시 방학을 맞이합니다. 잠시 쉬어가면서, 앞으로의 만남을 더욱 기쁘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동안 준비 및 뒷정리를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2. 소공동체 반 이동 가능 안내

- 작년과 마찬가지로 현재 속해있는 소공동체 반에서 다른 소공동체 반으로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12월 1일(주일)까지 캔버라 성당으로 ‘성함, 세례명, 연락처, 희망 소공동체반’ 이렇게 적어서 성당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canberra.kcc@gmail.com](mailto:canberra.kcc@gmail.com)
- 신청해주신 내용은 12월에 새로이 선출되는 각 소공동체장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3. 2025년 달력 배포

다음주 (11월 17일)부터 2025년 달력을 성당 입구에서 나누어드립니다. 이번 달력은 벽걸이와 탁상 달력으로 2가지 종류를 마련하였습니다.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1부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 4. 사랑의 선교회 수녀원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5. 시즌 여정 2 - 영적독서 나눔 시작

영적독서 나눔 모임을 신청하신 신자분들께서는 미사 후 성당 입구에서 책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첫모임: 11월 26일(화), 저녁 7시 목주기도 후**  
 모임을 위하여 다음 부분을 읽어주세요

1. ‘예수의 생애’ 110p까지
2. ‘주님과 함께하는 10일의 밤’ 85p 까지

### | 미사 참례자 수 |

11월 3일	다문화 미사 참석
11월 10일	유아·청소년: 16명 성인: 51명

###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b>화</b>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11월 17일)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다음주 (11월 24일)	양홍석 베드로, 안영규 필립보

###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11월 17일)	루카반
다음주 (11월 24일)	마르코반

### | 우리들의 정성 | (11월 9일 ~ 11월 15일)

<b>봉 헌 금</b>	\$ 282.80			
<b>교 무 금</b>	\$ 680			
권묘순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전인철	정은영
조성희	주정자	한상지	황병욱	

### | 기도 지향 |

- \*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 \* 투병 중인 모든 환자분들을 위해
-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